# 현 군수 지지기반 견고… "대항마 누구 없소"

## 강진군수

### 차봉근 전 도의장 설욕 나설지 주목

### 다른 지역과 달리 신당측 인사 없어

현 강진원(54) 군수의 재선 도전에 아직까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 군수는 행정전문가 출신답게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2년 밖에 되지 않은 강 군수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강 군수의 현역 프리미엄과 인물론이 강점으로 꼽히는 점도 다른 후보들이 쉽사리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봉근(67)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황호용(69) 전 전남도의원의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뚜렷한 행보 없이 수면 아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안철수 신당' 측 인물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 군수의 재선 가도가 '독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이른 판단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을 지낸 강 군수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2년여 남짓 군정을 이끌면서 대·내외적으로 대형 사건·사고 하나 없는 조용하고 안정된 행정체계 속에서 실속있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최근 강진 황금 한우 명품화 사업 30억원, 농어촌 도서관 육성사업 16억원 등 38건에 총 235억원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등 52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공모사업의 3배 증가한 수치로, 강진 군정사상 최대 규모다.

강 군수는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신 강진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향후 남은 임기에 이어 민선 6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 통한 관광객 유치 ▲강진 미(美) 프로젝트 추진 ▲강진 월출산권 문화·역사·체험 관광명소 개발 ▲호남권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및 경비행장 유치 ▲마량권역 해양레저 휴양도시 조성 ▲여주·콜라비 등 틈새작물 집중 육성 ▲명품 '강진 한우' 일등 브랜드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 군수와 맞붙어 패한 경험이 있는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설욕'에 나설지 주목된다. 차 전 의장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26%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74.4%를 얻은 강 군수에게 '완패'했었다.

■ 강진군수 출마예정자

| 정당 | 민주당 | 민주당 | 민주당 |
|---|---|---|---|
| 이름(나이) | **강진원**(54) | **차봉근**(67) | **황호용**(69) |
| 주요경력 | · 강진군수<br>· 전)전남도 기업도시 기획단장 | · 전남도 의정회 회장<br>· 전)전남도의회 의장 (5·6대) | · 강진농고 총동문회장<br>· 전)전남도의원 (7·8대) |

※ 후보는 가나다 순

5·6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풍부한 의정경험 활동과 지역 밑바닥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강진 토박이'인 차 전 의장은 네 차례 군수 도전에 실패했지만, '칠전팔기' 정신과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근성을 높게 평가받으면서 다양한 지역활동으로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차 전 의장은 주민자치·주민참여 활성화와 농업 및 지역경제 성장, 복지 강진, 지역인재 양성, 평생교육기반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황호용 전 전남도의원도 차기 군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군수 후보군으로 나서기도 했었다.

황 전 도의원은 45년간 민주당을 지킨 소신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현재 강진농고 총동문회장과 강진읍 유림회장직을 맡아 활동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며 향후 정치판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을 할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이슈&변수

### 공천제 폐지 여부 현군수 영향 못줘

### 신당 창당되면 새인물 등장 가능성

차기 강진군수 선거는 강진원 현 군수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아직까지 큰 이슈나 변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향후 기초단체장 공천제도 폐지 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강 군수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과 탄탄한 지지기반 때문에 공천제도가 폐지될 경우 강 군수에게 인지도 면 등에서 더욱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 군수는 지난해 보궐선거임에도 74%대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될 정도로 지지기반이 견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보선에 당선되지 2년여 남짓밖에 되지 않은데다 단 한 건의 행정적인 사건·사고 없이 무난한 군정을 펼쳤다는 평가도 강 군수의 재선 가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잠재적 출마 예상자로 꼽히고 있는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황호용 전 전남도의원의 향후 움직임과 '안철수 신당' 측의 새로운 인물 등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중 강진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안철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신당' 후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지역사회의 관측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민주 vs 安신당 vs 무소속 다자구도 대결

## 장흥군수

### 현 군수 3선 도전에 4명 출사표

### 민주 후보경선 한바탕 치열 예고

민주당 소속의 이명흠(64) 현 장흥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서 4명의 입지자들이 도전장을 던져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내년 장흥군수 선거전은 이명흠 군수가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장흥군수 중 첫 3선 도전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들간 치열한 접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이 군수에 도전장을 낸 입후보 예정자로는 김상국(58) 전 서울시 광진구 기획재정국장, 김 성(54) 전 전남도의원, 정종순(58) 전 NH개발 전무이사, 최경석(51) 전남도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이 군수와 김 성 전 도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무소속 후보인 김상국 전 서울시 광진구 국장과 최경석 전남도의원과 '안철수 신당' 측 인사로는 정종순 전 NH개발 전무이사로 나뉘어 차기 장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vs '안철수 신당' vs 무소속의 다자구도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군수는 재선의 재임기간 중 산업단지 유치, 물 축제, 장흥과 제주를 오가는 뱃길 등 획기적인 경제 발전 사업을 펼쳐 '경제군수'라는 이미지와 함께 탄탄한 지지층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특히 전남지역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은퇴자 촌) 조성과 '통합의료센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라는 점을 최대의 성과로 자평하며 3선을 자신하고 있다.

김상국 전 서울시 광진구 기획재정국장은 지난 추석 이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역을 누비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전 국장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근무해온 전형적인 관료출신이다. 현재 인지도는 낮지만, 중앙의 두터운 인맥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최적임자라는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김 성 전 도의원은 2007년 재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등 두 차례 군수 도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지로 또다시 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 장흥군수 출마예정자

| 정당 | 무소속 | 민주당 | 민주당 | 안철수신당 | 무소속 |
|---|---|---|---|---|---|
| 이름(나이) | **김상국**(58) | **김성**(54) | **이명흠**(64) | **정종순**(58) | **최경석**(50) |
| 주요경력 | · 전)서울시 광진구 기획재정국장 | ·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비전임 교수<br>· 전)전남도의원(재선) | · 장흥군수<br>· 전)장흥부군수 |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br>· 전)NH개발 전무이사 | · 전남도의원<br>· 전)장흥군의원 |

※ 후보는 가나다 순

그는 그동안 장흥지역 선거 판세를 좌우해온 남부권 출신이라는 장점과 20여 년 간 정치 현실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여성층과 공직사회를 상대로 지지층을 넓혀 가고 있다.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인선된 정종순 전 NH개발 전무이사는 33년간 농협중앙회에 근무한 '전문 농업 경영인'이라는 신선함과 참신성을 앞세워 '농어촌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정 전 전무이사는 그동안 농협 생활을 하면서 맺어온 농어촌 농협 조합원들과 여성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안철수 신당' 측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를 지낸 최경석 전남도의원은 장흥군 의원을 역임한 뒤 곧바로 도의원에 당선, 군정과 도정의 경험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그는 기초·광역의원을 모두 역임한 풀뿌리 지방자치 인물임을 강조하며 현 군수의 '개발과 성과 중심의 행정'에 맞서 '안정과 화합 위주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아래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슈&변수

### 해당산단·로하스타운 뜨거운 공방

### 동학혁명 사적지 성역화 쟁점으로

차기 장흥군수 선거전의 최대 쟁점은 재선의 이명흠 장흥군수가 그동안 펼쳐놓은 해당산업단지 활성화와 로하스타운(은퇴자 촌) 추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동학혁명 사적지 성역화사업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군수는 해당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3선을 통해 자신이 유치한 산단의 분양과 활성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달 말에 착공되는 1500여 세대의 로하스타운(은퇴자 촌) 조성 역시 후보자들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로하스타운은 4000억원에 달하는 민자자본으로 투자된다는 점에서 선거가 본격화되면 후보 간 '실효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흥군수 선거판세는 남부권 표심에 의해 좌우돼 왔다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남부지역민들의 표심을 잡느냐가 승패를 판가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자간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장흥군수 선거전 양상으로 볼때 그동안 탄탄한 조직력과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명흠 군수가 가장 유리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05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84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112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62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7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09월 05일

판 사 전 우 진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00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1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19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2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35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44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54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62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70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78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8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105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115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264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73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56 |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65 | 유한회사 나라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72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79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84 | 주식회사 부창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공단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91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00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0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09월 06일

판 사 장 재 용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2997 | 경기합동경동택배 주식회사 (변경전 합동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05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15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23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3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38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48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58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66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74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8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109 | 주식회사 광성화물 | 도로법위반 |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
| 2013고단 3119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59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68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7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09월 06일

판 사 장 찬 수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260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269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6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70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77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83 | 주식회사 부창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공단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87 | 유한회사 동광로지스텍 (변경전 유한회사 하나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96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075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12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45 | 주식회사 벽진미니특수 (변경전 주식회사 미니특수화물)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51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09월 16일

판 사 이 동 호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660 | 주식회사 벽진미니특수 (변경전 주식회사 미니특수화물) | 도로법위반 |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669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76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82 | 주식회사 부창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공단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86 | 주식회사 코리아물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95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04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11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77 | 주식회사 벽진미니특수 (변경전 주식회사 미니특수화물)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83 | 유한회사 동광로지스텍 (변경전 유한회사 하나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91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09월 25일

판 사 장 찬 수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896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03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51 | 유한회사 나라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57 | 유한회사 동광로지스텍 (변경전 유한회사 하나운수) | 도로법위반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61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6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79 | 유한회사 나라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86 | 유한회사 동광로지스텍 (변경전 유한회사 하나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93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10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113 | 주식회사 성산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케이원물류)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10월 07일

판 사 장 찬 수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741 | 유한회사 세원로지텍 (변경전 유한회사 동성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47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53 | 유한회사 무등통운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80 | 주식회사 부창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공단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87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796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892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899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54 | 주식회사 부창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공단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59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964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75 | 유한회사 나라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82 | 주식회사 부창물류 (변경전 주식회사 공단운수)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89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96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098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103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4110 |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 유한회사 광성화물운수사)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10월 07일

판 사 장 재 용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3고단 3654 |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63 | 주식회사 벽진미니특수 (변경전 주식회사 미나특수화물)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89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 2013고단 3698 |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 도로법위반 |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년 10월 11일

판 사 전 우 진